

광주·전남 이산가족 기다릴 날 많지 않다

5년동안 329명 사망...상봉 대기자 광주 547명·전남 825명
80세 이상이 62%...“하루라도 빨리 가족 만났으면” 애대위

장기간 열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인 탓에 시간이 갈수록 복讎에 있는 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기다리는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18일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이산가족 등록자 수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최근 5년(2013~2017년)동안 광주·전남지역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701명 중

19.3%인 329명이 꿈에 그리던 가족과의 만남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해 대기중인 광주·전남지역의 대기자 수는 모두 1372명(광주 547명·전남 825명)이다. 지난 1988년부터 전국에 등록돼 있는 이산가족 수는 13만1344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7만2307명에 이른다. 생존자는 5만9037명에 불과하다. 특히 생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90세 이상 1만1183명(18.9%) ▲80~89세 2만5266명(42.8%) ▲70~79세 1만3761명

(23.3%) ▲60~69세 5093명(8.7%) ▲59세 이하 3734명(6.3%)로, 80세 이상이 전체 생존자의 절반이 넘는 61.7%에 이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1985년 9월 남북이 고향방문단을 교환하면서 시작했다. 그 동안 21차례의 대면상봉으로 4185가족, 1만9928명이 재회했다. 또 7차례의 화상상봉으로 577가족, 3748명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이산가족 교류는 끊긴 상태다. 평안남도 대동면 출신 명상엽(87·광주시 서구 양동) 이북5도연합회장은 “올해 벌써 내 나이가 87살인데 건강도 좋지 않다”며 “죽기 전에 꼭 가족들을 만나고 싶

다. 정부에서 하루 빨리 이산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도 “광주·전남지역 이산가족 신청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해져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며 “최근 어르신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꼭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설치한 ‘화상상봉 시스템’이 지난 2007년 이후 사용하지 않는 등 현재 대부분의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장비불능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종교 갈등에 딸 숨지게 한 부부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던 딸을 숨지게 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화순경찰청은 18일 폭행치사 혐의로 A(56)씨와 B(여·55)씨 부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께 화순의 한 펜션에서 딸 C(25)씨가 소리를 지르며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려고 다리를 누르고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다. 부부는 C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날 오후 5시 43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해 병원에 옮겼으며, C씨는 열흘 만인 지난 9일 밤 11시 35분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검시결과 질식사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외상

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5년 가까이 특정종교를 믿고 있는 딸을 설득하려고 이날 화순으로 가족 여행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딸과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특정종교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딸이 고향을 지르고 집기를 부수는 행동을 해 다른 투숙객이 들을까봐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숨진 C씨가 다녔던 종교 관계자는 “이번 여신도 사망사건은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성매매 3000회 알선 유흥주점 업주 구속

광주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상무지구’에서 30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은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영업시장 20여명과 성매매 숙박업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업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소재 모 유흥주점에

서 여종업원 80여 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해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노래 등을 부를 수 있는 일명 ‘룸’을 24개나 갖추고 있는 이 업소는 광주지역에서 3대 유흥주점으로 꼽힐 정도로 영업규모가 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 여종업원의 성매매 알선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서게 됐다”면서 “구속된 A씨와 유흥주점 영업사장, 숙박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차량 훔쳐 도주 사고...실탄 쏘며 한밤 추적전

광주광산경찰, 만취 30대 검거

광주광산경찰은 18일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 순찰차 등을 들이받은 혐의(절도·공무집행방해 등)로 조모(36)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대형마트 주차장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A(55)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훔쳐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거에

나선 순찰차 등 3대의 차량을 들이 받고 경찰을 치어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12%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검거에 나선 경찰은 이날 밤 10시 20분께 흑석사거리에서 조씨를 발견, 하남산단 방면으로 도주하는 조씨를

15분 가까이 5km 이상 추격한 끝에 도주하는 차량의 뒷바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쏘 하남산단 6번로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한 달 전 아내가 집을 가출해 스트레스 쌓여 혼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차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포트홀 복구 18일 광주시 북구청 건설과 긴급도로보수팀이 중흥동의 한 도로에서 폭설과 제설작업으로 생긴 포트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착장 가드레일 설치 민원 수차례 제기했건만...

완도서 경운기 추락 5명 사상

감태작업 뒤 귀가하다 참변

완도의 한 선착장에서 경운기 추락사 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급경사가 심한 제방도로에서 일어났는데, 행정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人災)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그간 추락 사고에 대비해 도로 양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18일 완도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46분께 완도군 약산면 사동항 인근 제방도로에서 윤모(80)씨가 몰던 경운기가 5m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 화물칸에 타고 있던 장모(여·78)씨와 박모(여·77)씨 등 2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윤전자 윤씨와 동승자 전모(70)씨 등 나머지 3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장소는 돌·콘크리트로 조성된 높이 5m·너비 4m의 제방도로로, 경사 50~60도의 ‘C자’ 형태로 굴곡진 길이였다. 마을 주민들은 주로 이 제방도로를 이용, 집과 바닷가 작업장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전자 윤씨는 바닷가에서 감태 작업을 마친 마을 주민 4명을 경운기에 태우고 작업장에서 2.5km~3km 떨어진 마을로 가던 중이었다. 주민들은 그간 해당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 점을 고려해 행정당국에 제방도로 양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윤씨가 커브길에서 경운기를 몰고 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완도=정운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체험활동 중 익사 학생에 3억 배상 판결

“안전 관리·보호 의무 소홀

지자체·안전공제회 등 책임”

체험활동 중 물에 빠져 숨진 학생에게 안전관리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14세)군 유족이 신안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안군,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이 공동으로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 학생이던 A군은 2015년 8월 담임교사, 같은 반 학생 12명과 신안 한 해수욕장으로 체험활동을 갔다

가 물에 빠져 숨졌다. A군은 당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신안군에 사고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당시 해당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해야 했지만 2명만 배치됐다. 더 욱이 이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고 수영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또 담임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교사가 소속한 기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체교사 당부를 저버리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등 A군의 과실도 있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훔친 운전기사 종이컵 지문에 ‘탈미’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화물차량에서 운행기록장치와 블랙박스 등을 훔쳤다가 무심코 버린 종이컵에 찍힌 지문 때문에 경찰에 달미. ○...1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조모(53)씨는 지난해 11월 22일 밤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한 택배회사의 주차장에서 정모(54)씨 소유의 15t 화물차에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중이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10분 만에 전면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장치 등 107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는 것.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물차량 안을 조사하던 중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컵을 발견하고 지문 감정의뢰를 통해 조씨를 검거했는데, 조씨는 경찰에서 “같은 차종의 화물차를 보자, 갑자기 고장 난 운행기록장치가 생각나 (교체하기 위해) 뜯어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최고의 투자가치 / 자신있게 추천 /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북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411-10번지외 10필지
(월정 삼거리 코너, 구 월정초등학교 자리)

■ 대지 5843평, 건물 512평

■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 등등

■ 현재 관관농원/ 펜션/ 식당/ 캠핑장 운영중

■ 2차선 도로접, 삼거리 코너, 계곡등 최고의 위치

■ 연수원/ 수련원/ 요양(병)원/ 펜션/ 캠핑장 등등

모든 용도개발 가능

■ 시세 30억, 급매 20억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010-3605-5000